



“하기는 해봤어?”

현대그룹 창업자인 故정주영 회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보고서를 올리면 “그런데 해보긴 해봤어?”라고 반문함으로써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30년 넘게 인쇄업에 종사해 온 분들을 만나 보면 큰 어려움없이 기업을 이끌어 온 분들도 일부있지만 적지않은 인쇄인들이 그야말로 드

라마틱한 인생역정을 걸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IMF사태때 인쇄인들 또한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살직전까지 몰렸던 슬픈 사연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거래처의 도산으로 동반 알거지(?)가 되어 삶을 아예 포기하고 백두대간을 오르다가 영감과 용기를 얻고 재기에 성공한 인쇄인도 있다. 일감이 떨어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돈까지 떼이고 그야말로 야반도주해 숨어 살면서 호구지책으로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길거리에서 호떡장사까지 했던 인쇄인도 있다.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서 하염없이 흐르는 물에 낚싯대만 드리우고 세월을 낚았던 인쇄인이 있는가 하면 공장에서 먹고자며 일 배우고 주경야독으로 대학과정까지 공부해서 성공한 의지의 인쇄인도 40년 가까이 현역으로 뛰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삶의 발자취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의 인쇄계 상황을 어렵다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비관속에서 헤어나기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벼랑끝에서 화려하게 재기한 인쇄인을 귀감으로 삼아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점과 유리한 상황을 점검해 보는 일도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죽음직전이나 벼랑끝 상황까지 몰렸다는 절박한 상황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친절한 생활태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원로인쇄인 한 분은 젊어서부터 몸에 밴 친절과 겸손에 감동한 큰 거래처가 일감을 발주하기 시작함으로써 오늘의 발판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다.

이와함께 이 분들은 신용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공장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거의 일주일 을 뜯눈으로 뛰면서 납기내에 인쇄물을 납품했는데 왜 밀어주지 않겠는가? 신용이라는 밑천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어지내는 곳까지 찾아와서 자금도 빌려주고 일감도 맡기면서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분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가족사랑이라는 끈끈한 접착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업 경영에 승부를 걸었다고 입을 모은다. 신파조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많고 존경심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입지전적인 인쇄인들이 적지않다.

작금의 인쇄계 상황을 어렵다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비관속에서 헤어나기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죽음직전이나 몰려설 곳 없는 벼랑끝에서 화려하게 재기한 인쇄인들을 귀감으로 삼아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점과 유리한 상황을 점검해 보는 일도 바람직할 실정이라고 하겠다.

오세익 · 편집주간